

국별 리포트

방글라데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144천 km ²	GDP	1,838억 달러 (2014년)
인구	158백만 명 (2014년)	1인당 GDP	1,162달러 (2014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Taka (Tk)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달러당)	77.6 (2014)

- 동쪽으로는 미얀마, 서쪽으로는 인도, 남쪽으로는 벵갈만과 접하고 있으며 세계 제1위의 인구밀도(1,203명/km², 2013년)를 기록하고 있음.
- 1947년 종교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동벵갈지역(현 방글라데시)은 파키스탄의 일부로 인도로부터 독립하였으나, 동파키스탄인 차별 정책에 대한 반발 심화로 분리주의를 내세운 아와미 연맹(AL)이 집권하면서 1971년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변경하고 파키스탄에서 탈퇴함.
- 전형적인 저개발농업국가로 전체인구의 약 4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성이 낮아 외자 및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수민족 비중이 낮아 문화적 동질성이 높으나 문맹률이 높고 인구 1%에 해당하는 상류층이 국부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빈부격차가 심각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e
경제성장률	6.5	6.3	6.0	6.3	6.5
재정수지/GDP	-3.6	-3.0	-3.4	-3.1	-3.2
소비자물가상승률	11.5	6.2	7.5	7.0	6.4

자료: IMF.

주) 방글라데시 회계연도는 전년도 7월에서 당해 연도 6월까지로 구성됨.

□ 정정불안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6.5% 시현 추정

- 의류부문의 수출 호조,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소득 증가, 원조자금에 의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 이후 6%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2012/13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6.0%를 기록하였음. 2013/14년에도 농업 생산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와 인프라 사업 투자 증가로 인한 정부지출 확대로 6.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음.
- 2014/15년에는 전국적인 시위로 인한 정정불안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근로자 임금 인상, 공공부문 투자 확대에 따른 민간소비가 증가하여 6.5%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3.2%로 소폭 증가 추정

- 방글라데시는 취약한 세수기반, 복잡한 조세 제도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전력·수출·석유 관련 대규모 보조금 제공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2/13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복지지출이 확대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3.4%로 확대되었음. 2013/14년에는 전력 등 인프라 투자와 복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료 보조금 축소로 동 비중이 3.1%로 감소하였음.
- 2014/15년에는 정정불안으로 세수증가가 소폭에 그친 반면 인프라 투자 증가, 전력보조금 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3.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4%로 감소 추정

- 2012/13년에는 식량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전기료 및 유류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5%를 기록하였으며, 2013/14년에는 임금 상승과 보조금 축소에 따른 연료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0%를 기록하였음.
- 2014/15년에는 국제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 안정, 곡물 생산량 증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4%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 의류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 방글라데시는 전체 노동력의 45% 이상이 농업 부문(전체 GDP의 15%)에 종사하는 후진국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 GDP 대비 산업별 비중('14년 기준): 서비스업 58%, 제조업 27%, 농업 15%
- 제조업의 58%를 차지하는 의류산업을 제외하면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자본재 및 소비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의류산업은 방글라데시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의 약 5.3%(약 4백만 명)가 종사하고 있음.

□ 부패 및 행정 비효율에 따른 높은 사회적 비용

-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따른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평가한 방글라데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순위는 174개국 중 145위로 하위권에 해당됨.

나. 성장 잠재력

□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

- 방글라데시 인구는 2014년 기준 1억 58백만명(세계 8위)이며, 전체 인구의 63.6%(‘15년 기준)가 경제활동인구(15~59세)로 노동력이 풍부함.
 - 2015년 UN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2050년 방글라데시 인구는 2억 명(세계 8위),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61.3%로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JETRO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생산직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014년 12월 기준 100달러로, 주변국 대비 낮아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상품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 * 월평균 임금수준(달러): 베트남(176), 미얀마(127), 캄보디아(113), 라오스(112)

다. 정책성과

□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교통, 전력 등 인프라가 열악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전체 내륙 운송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객 73%, 화물 63% 수준이나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정체가 심각함. 또한, 발전시설 부족으로 만성적인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약 40%가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Vision 2021’이라는 국가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세출의 30% 이상을 개발프로그램(Annual Development Program: ADP)에 배정하는 등 인프라 부문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음.
 - 정부는 민간 부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인프라 개발기금을 설치하여 저리의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 빈곤 퇴치 프로젝트 시행 등의 결과로 빈곤률 감소

- 정부는 기본생활수준, 보건, 교육, 환경에 대한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빈곤 퇴치를 위한 PRSP(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프로젝트 등을 시행함에 따라 빈곤률이 56.6%(1992년)에서 31.5%(2010년)로 감소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e
경 상 수 지	-162	2,576	2,058	-1,677	779
경상수지 / GDP	-0.1	1.9	1.4	-1.0	0.4
상 품 수 지	-8,070	-7,267	-6,362	-10,171	-8,286
수 출	24,537	24,904	28,638	29,929	29,929
수 입	32,607	32,171	35,001	40,099	38,215
외 환 보 유 액	8,510	12,031	17,564	21,785	25,055
총 외 채 잔 액	27,326	26,188	27,804	24,473	25,287
총외채잔액 / GDP	21.2	19.6	18.5	14.1	13.0
D. S. R.	3.7	3.6	3.6	3.7	3.1

자료: IMF, EIU.

□ 유가 하락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 전환 추정

- 의류 등 저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하고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등을 수입하는 교역구조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해외근로자의 송금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가 상품수지 적자를 만회하고 있음.
- 2012/13년에는 의류 및 황마 등의 수출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 등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1.4%로 감소함.
- 2013/14년에는 상품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증가와 인프라 개발 확대에 따라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가 38억 달러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1.0%로 적자 전환하였음.
- 2014/15년에는 교통망 붕쇄시위, 면화 가격 하락에 따른 의류수출품 가격 하락 등에 따라 상품수출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원유 수입금액 감소 등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폭 감소와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0.4%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 증가 및 GDP 대비 총외채 비중 감소

- 외환보유액은 2010/11년 8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15년 외환보유액은 251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201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4/15년에는 13.0%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총선 무효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정국 교착 상태 지속

- 방글라데시 국민당(BNP)을 주축으로 한 야당 연합이 2014년 1월 시행된 총선에 불참하고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였으며 이를 경찰이 무력 진압 하면서 야당 지지자 150명 이상이 사망하여 갈등이 고조되었음.
 -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 연맹(AL)은 야권의 불참과 유혈 사태 속에서도 예정대로 총선을 강행해 총 300개 선거구 가운데 232석을 차지하였으나 투표율은 20% 수준을 기록하는 등 반쪽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음.
- 야당 연합은 새 총선을 요구하며, 총선 1주년인 2015년 1월에 지지자들에게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함. 이에 따라 시작된 전국적인 ‘교통 봉쇄’ 시위는 버스, 트럭 등 차량에 대한 무차별 방화 등의 소요사태로 심화됨.
 -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시위대가 총 1만 명 진행되는 등 5월 까지 사회불안이 지속되었으며,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다음 총선이 예정된 2019년까지 정국 교착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2. 사회동향

□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법 개정

- 2012년 다카 인근 패션 의류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2013년 4월 라나 플라자 의류공장 붕괴 사고를 기점으로 의류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2013년 중 대규모 시위를 벌였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러한 불만을 일부 수용하여 2010년 이후 3년 만인 2013년 12월 의류노동자들의 월 최저임금(38달러)을 77% 인상한 68달러 수준으로 확정하였음.
- 또한, 사망위로금·퇴직금 지급, 비상구·안전장비·위생시설 설치, 근로자보험 의무가입 등 근로환경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여 2013년 7월 노동법을 개정하고 2015년 9월 이를 발효함.

□ 이슬람 비판 블로거 및 외국인 피살사건 발생

- 방글라데시는 인구의 약 90%가 이슬람교 신자이며, 이 중 대다수가 수니파로 구성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크지만, 소수인 시아파에 대한 차별이 없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은 미미한 편임.
- 그러나 2015년 중 이슬람 극단주의에 비판적인 인터넷 블로거 4명이 괴한들에게 피살되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장괴한의 습격이 잇따르는 등 피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2015년 5월 정부는 블로거 살해사건에 대한 유력한 범행세력으로 이슬람 무장단체(Ansarullah Banga Team: ABT)를 지목하고 테러방지법에 따라 추방명령을 내리는 등 대테러활동에 힘쓰고 있으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음.

3. 국제 관계

□ 인도와 경제·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 노력

- 인도의 맘모한 싱 전 총리('11.9월)와 프라납 무커지 대통령('13.3월), 모디 총리('15.6월) 등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는 등 양국은 경제 및 정치적으로 매우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음.
- 2013년 기준 인도는 방글라데시의 제2위 수입국(전체 수입액의 16.3%)으로 주로 면, 면사, 곡물, 차량 등을 수입하고 있음.

□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 강화

-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군수품 공급원으로 방글라데시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 공여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주요 공여국인 미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

- 미국은 방글라데시의 주요 공여국이며 국방, 테러 방지, 안보, 치안유지 등의 분야에서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다만, 의류공장 붕괴사고에 따른 노동자 권익 보호를 계기로 미국은 2013년 6월 방글라데시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잠정 중단하였음.

* 특정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 등에 대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2012년부터 IMF 차관 수혜 중

- IMF는 방글라데시에 대해 2012년 4월부터 3년간 총 9억 8,700만 달러 규모 (10년간 무이자)의 확장적 차관(Extended Credit Facility)* 제공을 승인함.

* 국제수지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IMF 차관의 한 종류로 대출조건이 차입국에 유리한 양허성 차관제도

□ 지속적인 외채 관리로 양호한 수준의 D.S.R. 유지

- 외채의 83%가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2012/13년 기준)이며, 정부가 외국인 증권투자 및 민간부문 해외차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외채 규모 변동폭이 크지 않음.

- 지속적인 외채 관리와 수출 증가로 2014/15년 D.S.R.는 3.1로 2010/11년 이후 4% 이하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 국제시장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3 (2015. 11)	C3 (2014. 12)
OECD	5등급 (2015. 6)	6등급 (2014. 6)
S&P	BB- (2010. 4)	-
Moody's	Ba3 (2014. 4)	Ba3 (2010. 4)
Fitch	BB- (2015. 8)	BB- (2014. 8)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는 6%대 경제성장 지속,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의류산업 근로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2015년 6월 방글라데시의 국가신용등급을 5등급으로 상향 조정함.
- S&P, Moody's, Fitch는 낙후된 인프라 환경, 취약한 정부의 재정상태, 관료적인 정부시스템 등을 지적하며 방글라데시의 신용등급을 BB-, Ba3, BB-로 유지함.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3년 12월 18일(북한과는 1973년 12월 16일)

□ 주요협정: 항공협정(1979년), 문화협정(1979년), 이중과세방지협약(1983년), 투자보장협정(1986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93년), 과학기술협력협정(1995년), 군수·방위산업협력 협정(2004년), 무상원조 기본협정(2014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1> 한·방글라데시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對 방글라데시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1,459	1,427	1,236	합성수지, 철강판, 종이제품
수 입	295	332	345	의류, 가죽, 기타섬유제품
합 계	1,754	1,759	1,581	-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3년에는 석유제품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죽 및 섬유제품 수입 증가로 전체 교역량이 17.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석유제품 수출이 1.2억 달러 급감하면서 전체 교역량이 15.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함.
-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말 기준 234건, 2.9억 달러 (누계기준)를 기록하고 있음.

V. 종합 의견

- 2013/14년에는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정부지출 및 민간소비 확대로 6.3%의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2014/15년에는 정정불안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에 따라 6.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3/14년에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료 보조금 축소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3.1%까지 감소하였음. 2014/15년에는 정정불안으로 세수증가가 소폭에 그친 반면 인프라 투자 및 전력보조금 지출에 따라 동 비중이 3.2%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013/14년에는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이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하였으나, 2014/15년에는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수입금액 감소와 해외 근로자 송금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0.4%로 흑자 전환하였음.
- 총선 무효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당분간 정국 교착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며, 블로거 및 외국인 피살사건 등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음.
- GDP 대비 총외채 잔액 비중과 D.S.R.이 낮은 수준이고 외채 대부분이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로 구성되어 단기적으로 외채상환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송 용 원 (☎02-6255-5705)

E-mail: song@koreaexim.go.kr